

7/11/21

설교 제목: 당신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8장 1-32 절

(출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출 8:3)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에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출 8:4)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출 8: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출 8:6)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출 8:7)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출 8: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출 8: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출 8:10)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 8: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출 8: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출 8: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출 8: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출 8: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8: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 8: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출 8:18)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출 8:19)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퍽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8: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출 8:22)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 8: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8: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출 8: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출 8:26)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출 8: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데로 하려 하나이다

(출 8:28)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 8:29)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출 8: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출 8: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출 8:32)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은 애굽에 내린 이 열 가지 재앙 중 첫 번째 피 재앙에 이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칠 것이라”는 당신의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출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리고 개구리로 애굽 땅을 덮게 하십니다.

(출 8: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출 8:6)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으니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출 8: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출 8: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출 8:10)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출 8: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이에 모세는 언제 떠나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바로에게 묻는 것은 개구리가 올라온 일이나 떠나게 된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죽어 없어지자 바로는 마음을 바꿉니다.

(출 8: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출 8: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출 8: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출 8: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생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틈새를 파고 듭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까지 곧 세상 마지막 날까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출 8: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 8: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첫 번째 피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흥내를 내었으나 세 번째 이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 8:18)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출 8:19)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퍽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출 8: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 8: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 8:22)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 8: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8: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제까지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을 포함하여 애굽 온 지역에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유월절에 발생한 열 번째 장자 재앙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별하심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립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하만민 중에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 7: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들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구별되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 따른 자격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출 12: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출 12: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와중에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라는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인 것입니다.

다급해진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 8: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바로 즉 사탄은 악착같이 애굽에 붙잡아두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입니다.

모세는 일언지하에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출 8:26)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출 8: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데로 하려 하나이다

애굽에 머물면서 바로와 하나님을 동시에 주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타협하여 이 땅에 머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일언지하에 거부하자 바로는 제 2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 8:28)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지배권 내에 머물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을 달고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믿되 이 땅에서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타협하여 자신의 지배권 내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전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다시는 그곳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게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그러하길 원하십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